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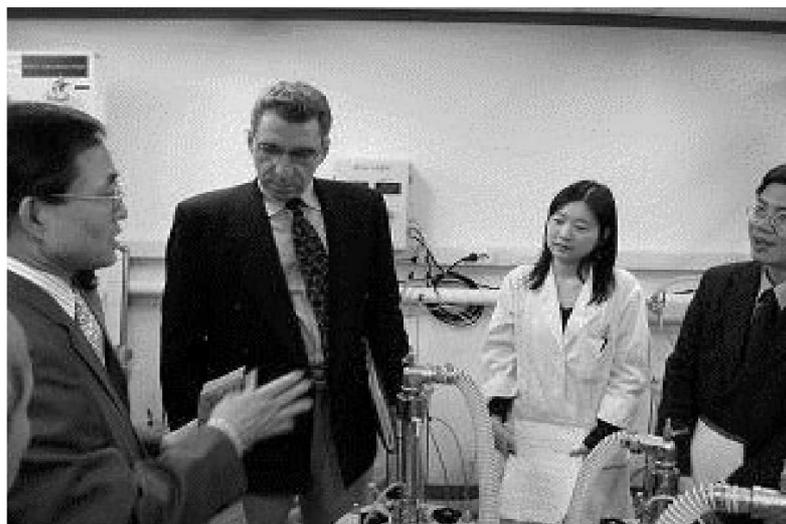
한국의 류시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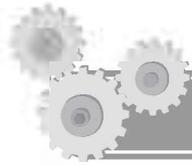
KATRI-TÜV NORD 상호 업무협력 약정체결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유정석)은 독일의 검사 기술협회인 TÜV NORD GROUP Korea와 2006년 3월 27일에 상호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교환, 기술 및 인력교류, 공동 연구수행 등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한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제적인 추이가 환경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RoHS의 인성시험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국내 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가 세계적인 TÜV 인정 취득에 편의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TÜV NORD
1890년대 후반부터 독일 연방정부 산하에서 독립

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TÜV(Rheinsch-Westfälischer기술검사협회)는 보다 경쟁력 있는 Global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TÜV NORD와 새로운 Group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ISO 9000/14000, TS16949 등의 시스템 인증업무는 물론 모든 제품의 안전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업무, 자동차 안전도 검사 및 테스트, 컴퓨터 통신 및 소프트웨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발전소 플랜트 및 공항건설 등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감리 검사업무, 환경영향평가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

homepage : <http://www.rwtuv.co.kr/>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세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 원장 박갑록)은 2006년 3월 28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박갑록 원장, 한상완 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양 기관은 산학연 공동연구 및 용역사업 수행,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시험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연세대학교와 포장재 및 포장물 관련 분야에 대하여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생활·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발전은 물론, 포장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동남아 최초로 의공학부를 개설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아울러, 의료전자분야 기술연구 수행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과 활발한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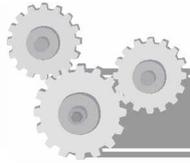
승강기 안전 및 법률정보 메일로 OK

사부실에서도 승강기 안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은 오는 3월 15일부터 관리주체 및 보수업체, 제조업체, 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승강기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정보나 법령개정내용, 승관원 홍보내용 등을 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메일 서비스는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를 목적으로 매월 1회정도의 안전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됐다.

한편 이메일 정보제공의 예상회원수는 5,000여명으로 연간 25,000건 정도가 발송될 예정이다.



KBS 뉴스9 기상캐스터 한연수씨, 승강기 안전 홍보대사로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월 20일 위촉식 가져 -

KBS 9시 뉴스 기상캐스터로 맹활약중인 방송인 한연수(사진)씨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보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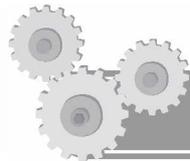
한연수씨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승강기 안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연수씨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후 97년에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KBS 9시 뉴스 기상캐스터 및 케이블 TV에서 방송활동 중이다.

승관원은 협약기간인 내년 3월까지 각종 동영상 및 라디오, 신문광고 등에 한연수씨를 출연시켜 광고효과를 높이는 한편, 기관이미지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유대운 원장은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생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문화 홍보를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한연수씨를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면서 “친근하게 다가서는 홍보 전략을 통해 승강기 안전문화 저변확대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관원, 대국민 승강기 안전캠페인 강화

TV, 라디오, 방송사 인터넷 다시보기 등 홍보강화



'06년 승강기 안전 홍보대사인 한연수씨가 출연했다.

이와함께 인터넷(TV프르 다시보기)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캠페인도 4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다시보기는 한달평균 220만 명 이상이 보도록 프로그램 된 강제노출방식이며, 취약 대상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승강기(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과 장마철, 격충운행안내 등을 주제로 제작된 신문·잡지형 공익광고를 4월부터 일간지 및 경제지 전문지, 잡지를 대상으로 게재하게 된다.

특히 신문·잡지형 에스컬레이터 안전캠페인은 서울 및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7개 지하철 공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게된다. 이 캠페인은 7개 지하철 공사와 협조하여 포스터로도 제작, 각 역사 에스컬레이터 탑승구에 나란되어 있는 게시판용에 부착하는 등 안전캠페인을 확대·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갇힘 등 안전사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전체 3,942건으로 전년 대비 43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은 갇힘 등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TV, 라디오, 인터넷(TV프르 다시보기), 신문·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캠페인 통해,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승관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뉴스전문 채널인 YTN을 통해 하루 3차례 이상 승강기 안전규칙을 주제로 제작된 동영상 캠페인을 언달까지 실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아침 7시52분에 KBS 2라디오(9개월간) 통해 안전캠페인을 송출하고 있다. 이번 라디오 캠페인은 3개월씩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교체·방송되며,

유대운 원장은 "안전규칙 미준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율이 전체사고의 평균 40% 이상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캠페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철저한 홍보효과분석을 통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